

민관협력을 통한 **공단 최대규모**

‘베트남 에너지효율 ODA사업’ 발굴·수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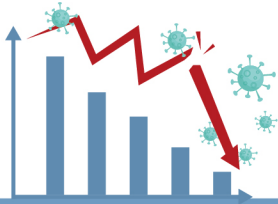


01 추진배경

코로나 이후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기회 축소
최빈국에서 공식적인 원조공여국이 된 유일 국가(2010년 OECD 개발원조위 가입)

▶ 2020년 약 3.7조원 ODA자금 지원, 하지만 국내기업 해외진출 미미

* 국회 기획재정위원회, 공적개발원조(ODA) 국내기업 해외진출 실적 지적



현황



경기 침체에 따른
국내기업 협력 요청



ODA사업을 활용한
국내우수 기술 전파 필요



베트남 급격한 경제성장 중
▶ 향후 10년 연료 수입량 3배 증가 예상
▶ 에너지효율 향상 시급

중점 방향



국내기업 지원을 위한
민간-공공협력 사업 마련



한국형 기술 전파를 위한
개도국 역량 강화 실시



신남방정책 중심국가인 베트남에 한국형
에너지효율 기술 전수 및 투자사업 발굴



02 추진노력 및 예상실적



민간-공공 협력사업 추진



국내기업 개도국 진출 지원을 위한 대규모 민간-공공기관간 공동 컨소시엄 구축

• KEA, KRIC, KDS 3사 및 전문가 약 20여명이 참여하는 공동 컨소시엄사 구성



국내 10개 대·중·소기업 사업 공동 참여

• SK증권, ENTL, 에네트, Bkeng, 삼덕회계법입, Geomax, 동서발전, A+파워 등



민간+공공기관 컨소시엄을 통한 공단 최대규모 ODA사업 발굴, 수주(4년 74억원 규모)

▶ 에너지분야 KOICA ODA사업 공동 발굴·수주, '베트남 산업 부문 에너지효율향상 및 녹색 성장 지원 사업'



베트남 대상 국내기술 전파



베트남 진단전문가 대상 역량 강화 교육 및 현장 학습을 통한 국내기술 전파

* 베트남 진단사 20명 대상 한국 초청 연수 및 현장교육 실시(10월 24일~11월 4일)

• 지방정부 대상 지속가능 녹색 성장을 위한 한국형 실행계획 수립지원



한국형 에너지 진단제도 접목 베트남 내 교육프로그램 개발 (2건)

▶ 한국의 우수한 정책, 제도 이식을 통한 친한파 전문가 양성

▶ 한국 기술 및 제품 지속 활용



지방정부대상 한국형 녹색성장 실행계획 보고서 개발(10건)



한국형 효율투자 사업 발굴



베트남 산업분야 3,000여개 에너지다소비장 발굴

* 연간 1,000toe 이상 사용하는 산업부문 3,000여개 에너지다소비 기업 발굴



절감잠재량이 우수한 20개업 최종 선정

* 발전소, 시멘트, 섬유, 식품 등 분야별 절감잠재량이 우수한 20개 기업 선정



KEA형 에너지진단을 통한 정감 아이템 발굴

* 한국에너지공단, 한국동서발전, ENTL, Bkeng 등 국내기업 공동 에너지진단 추진



20개기업 에너지진단을 통한 200여개 절감 아이템 발굴

▶ 3년간 20개기업 진단예정, 2022년 3~4개 진단 완료



에너지진단에 따른 에너지절감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도출

▶ 300천toe 및 1,000천tCO₂ (20개 기업 기준)

03 추진성과



민관협력을 통한 에너지분야 ODA사업 수주로 국내기업 해외진출 지원

민관, 대중소기업 약 15개 기업 참여, 70억 ODA프로젝트 수주



국내기업 한국기후변화연구원·KRIC, 한국개발전략연구소·KDS 역대 최대규모 ODA사업 수주

국제발주사업 참여를 위한 트랙레코드 제공



베트남 전문가 20명 초청교육, 한국형 에너지 교육 프로그램 2건 개발 및 녹색성장실행계획 10건 수립

지속가능한 한국 제도 및 기술 수출